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찬반투표 돌입

〈전공노·민공노·법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광주·전남 지역 3개 공무원 노조가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21일 투표에 돌입,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정치 세력화를 표방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노정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광주시·전남도,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민공노와 전공노 소속 광주시 동구, 북구, 서구, 광산구, 공무원들과 법원 노조원들이 3개 노조 통합 및 민노총 가입 여부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광주·전남 등 전국 3개 공무원 노조 통합 여부도

정부 “중립 의무 위반” 강경대응 밝혀 파장 예고

전남 지역에서도 여수·순천·나주·무안·해남 등 14개 시·군 공무원 7천여명이 이날부터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22일 오후까지 진행된다.

광주 지역 투표율은 이날 5시 현재 북구의 경우 조합원 740명(북구 민공노 주장) 가운데 30%, 서구는 조합원 563명(민공노 주장) 중 20%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동구와 광산구 노조는 투표상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무원 노조는 일과 중 투표행위 등에 대해 정부가 강경방침을 밝힌

탓에 점심 시간이나 출근 전에 투표에 참가했다.

북·서구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경우 출·퇴근길을 이용, 투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구청 노조의 경우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선거인 명부를 ‘가 나 다’ 순이 아닌 과별로 작성, ‘올며 겨자 먹기 식’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개 노조의 조합원은 전공노 4만8천명, 민공노 5만9천여명, 법원노조 8천500명 등 모두 11만5천명에

달하며, 3개 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금속노조(14만7천명), 공공노조(14만2천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민주노총 산하연맹이 된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시위나 정치투쟁에 참여하게돼,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강경대응을 경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로 복무 감찰반을 운영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며 “업무를 방해하는 조합원은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李대통령-후진타오 23일 ‘뉴욕 정상회담’

북핵 협력 등 현안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2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공동 관심사를 논의한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한중정상회담 일정이 오는 23일 오전으로 최종 확정됐다”면서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 방안 등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총회 및 유엔기후변화정상회의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또 내달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

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서 한중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후 주석이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한 유흥시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서둘러 귀국길에 오르면서 회담이 무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

슬로시티 관광상품화 ‘우리 손으로’

담양 창평 등 4곳 주민 주축 ‘슬로시티협’ 창립

전남지역 4개 슬로시티(Slow City) 주민이 주축이 된 슬로시티협의회가 창립한다.

담양 창평과 완도 청산도, 신안 중도, 장흥 유치·장평 등 전남도 내 4개 슬로시티 주민과 4개 지역 슬로시티 추진위원장, 관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은 22일 오후 2시 30분 도청 왕인실에서 (사)전남슬로시티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슬로시티 주민들이 직접 나서 협의회를 창립하게 된 것은, 전남 지역 4개 슬로시티가 지난 2007년 12월 인증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녹색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는 그동안의 자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창립되는 협의회는 슬로시티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슬로

시티를 대한민국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전남도는 창립총회에 앞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온생명 평생교육원 김인술 원장의 ‘관광객을 위한 슬로푸드, 생명의 밥상’, 전남대 강신겸 교수의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례와 성공전략’ 등 강의가 진행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강성노조 구성 국정방해 안된다”

이달곤 행안부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21일 “공무원들이 강성노조를 구성해 국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달곤 장관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현안을 보고받은 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 3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놓고 투표에 돌입한 것과 관련 “어떤 분야보다도 보호받는 공무원들이 강성노조를 구성해 국정을 방해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공무원은 신분과 정년보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고 각종 수당도 49가지나 된다”면서 “실업자가 늘어나는데도 공직사회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공직자는 국민의 봉사자이자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국가관을 가져야 하는 갑(甲)의 입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자회견답회에서 그는 시·군 통합과 관련해 “시군 통합은 지역발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민들이 마음을 모아 전·후·완주가 통합되면 지역이 발전하고 생활의 편의도 나아질 것”이라며 “이들 시·군이 통합되면 경제·사회적 규모가 커져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더 늘어나는 것은 물론 새만금사업이나 전주혁신도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러나 “행정기관이 나서 통합을 반대 혹은 찬성하는 여론을 주입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라마단 ‘금식성월 종료’ 기도

많은 무슬림들이 20일 새벽(현지시간) 사우디 아라비아의 성도(聖都) 메카에 있는 마스지드 알-하람 대 모스크에서 라마단 금식성월의 종료를 뜻하는 이드 알 피트르 기도를 올리고 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20일 새벽

(현지시간) 사우디 아라비아

의 성도(聖都) 메카에 있는 마스지드 알-하람 대 모스크에서 라마단 금식성월의 종료를 뜻하는 이드 알 피트르 기도를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순천경실련 “광양만권 도시통합” 서명운동 돌입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부터 순천시내에서 순천·여수·광양 등 광양만권 도시 통합을 촉구하기 위한 거리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순천경실련은 “같은 문화와 생활권을 가진 광양만권 도시 통합은 도시경쟁력을 키워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광양컨테이너부두 활성화 등 국제적 도시로 성장하

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이번 서명운동은 순수하게 주민의 자원의사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5천여명을 확보할 때까지 서명운동을 벌인 뒤 명단을 순천시에 제출해 통합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광주 도시 및 부동산 정보 전문 매거진

특별 프리미엄 박람회

아이엘리시아

최고급 아파트, 컨도미니엄, 빌라, 전원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062-671-1199

결로곰팡이방출을 건강과 물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세요

결로곰팡이 제거/결로방지공사

(주)이파빌지

특허받은 결로방지공법으로

단번에 해결하세요!

062-511-0444